

루이스의 기적 이해

이성주(백석대학교 대학원 기독교철학 박사과정)(대학원 1-5)

논문초록

이 논문은 목적은 루이스의 기적 이해를 통해 기독교의 기적이 역사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에 기적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살펴본 후에, 루이스의 『기적』(Miracles, 1947)을 연구 분석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루이스의 기적 이해가 기적을 의문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 한국 교회의 변증과 기적교리를 한 걸음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주제어: 기적, 루이스, 자연주의, 기독교 변증

1. 들어가는 말

최근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가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 특별히 비그리스도인은 ‘모든 종교가 모두 동등하게 옳다’고 주장한다(Lewis, 1947: 228). 이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상을 싫어한다. 이들은 유일한 구원을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보기에 더욱 신뢰하지 않는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을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길이며 참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초신자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험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 그 말씀은 ‘신화에서의 신 이야기’ 내지 ‘동화 같은 이야기’로 보이기 때문이다(Lewis, 1947: 135).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 인정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경멸하고 혐오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기적을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더 나아가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신이라 하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다는 결론이나 기독교에 기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상황을 고려한 이 논문의 일차 목적은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의 기적이해를 통해 기독교의 기적이 역사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기적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에, 루이스의 『기적』(Miracles, 1947)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다. 루이스의 기적 이해가 기적을 의문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 한국 교회의 변증과 기적교리를 한 걸음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2. 예비적 출발

루이스의 기적이해를 추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기적이 무엇이며, 어떤 관점에서 기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 기적 개념을 파악할 때 루이스의 기적 논의가 차지하는 위치가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2.1. 기적에 대하여

기적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기적이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또는 신이 행했다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기적을 이와 다르게 정의한다. 가령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 따르면,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자연의 일반적 방식을 거슬러 어떤 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의 기적 정의를 받아들인다(Brown, 1984: 11). 로키어에 따르면, 기적은 초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다(Lockter, 김상기·조성열 역, 1986: 12). 흄에 따르면, 기적은 자연법칙의 위반이다(Hume, 이태하 역, 2003: 18). 이 학자들은 기적을 각기 자기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기적을 정의할 때 유신론자는 유신론을 전제하고 무신론자는 무신론을 전제한다.

그렇다면, 루이스는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루이스에 따르면, “기적이란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 힘의 간섭이다(Lewis, 1947: 15).” 그는 기적을 정의할 때, 많은 신학자들처럼 유신론을 전제하지 않

았다. 오히려 모든 사상의 전제가 되는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를 논증 대상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기적』이 “역사적 탐구를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로서 의도된 것(Lewis, 1947: 14)”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신약학자들이 부딪혔던 과제는 역사적 예수에 관한 문제였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의 역사를 복음서들에 나타난 그의 초상과 더 이상 동일시할 수 없었다. 이 문제 앞에서 루이스는 역사적 예수에 관한 예비적 연구를 선보인다. 결국 루이스가 기적을 ‘대중적’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일반 독자들’이 품는 질문들을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다는 데 있다.

2.2. 세계관 문제

루이스는 기적을 정의할 때, 모든 사상의 전제가 되는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를 다룬다. 이를 다루기 위해서 루이스는 먼저 철학적 질문인 세계관을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Lewis, 1947: 25). 루이스에 따르면, “우리의 역사적 탐구의 결과는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달렸다(Lewis, 1947: 13).” 따라서 우리는 철학적 문제, 즉 세계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 질문은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철학적 질문이다.

이 철학적 질문을 풀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자연주의자와 초자연주의자의 말의 의미, 즉 말의 정의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다. 자연과 초자연을 먼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루이스에 따르면, “자연주의자는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연이라는 말은 온전히 ‘모든 것’, ‘전체’, ‘존재하는 것 전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주의자와 초자연주의자의 차이를 논할 수 없다(Lewis, 1947: 16).” 그래서 루이스는 우회적으로 묻는다. 자연주의자와 초자연주의자는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가?

우선 자연주의자들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 그들에 따르면, 자연이란 ‘저절로’ 혹은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자연주의자는 최종적 실체가 시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철저한 자연주의자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 자유의지란 인간이 독립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자는 사건들을 일으키는 별개의 힘이 자연 외에 따로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자발성과 자율적 행동은 자연이라는 ‘전체’에만 해당되는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자연주의자가 신을 부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연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신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자는 거대한 우주 전체 과정에서 ‘신’이 생길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들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면서 자연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Lewis, 1947: 17-22).

초자연주의자의 생각을 살피기에 앞서 루이스는 “초자연주의 중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형태에 대해서만 다룰 생각”이라고 밝힌다(Lewis, 1947: 21). 하나님 개념은 자연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념이며, 그들은 다신론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신들을 우주의 창조자나 자존적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초자연주의자는 자존하는 무언가가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자연주의자와 같다. 그러나 초자연주의자는 서로 다른 자연이 있다고 믿으며 한 자연이 다른 자연을 관계하고 간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것이 루이스가 말하는 기적이다. 하지만 루이스는 좀 더 확장된 논의를 원한다. 초자연주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루이스가 말하는 기적은 두 가지이다. 먼저 하나님

두 자연을 서로 관계할 수 있도록 맺어 줌으로써 기적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경우 기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가능성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일존재(하나님)는 하나 이상의 자연체계를 창조했다라도 그것들이 서로 침범하는 일이 전혀 없게끔 창조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Lewis, 1947: 222-25).

3. 자연주의의 난점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주의자와 초자연주의자가 만나는 세계관을 루이스를 통하여 다루었다. 인간 사상의 기본을 이루는 이 세계관을 모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과연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가? 먼저 자연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가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자연주의자들은 모든 유한한 존재나 사건을 ‘자연’에 비추어 설명해야 한다. 물론 이는 자연주의자가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부분의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주의를 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개의 것은 독립적이지 않고 자연이라는 체계 전체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

3.1. 자연에서 독립된 이성

모든 개개의 것이 독립적이지 않고 자연이라는 체계 전체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는 자연주의자의 필연적 주장은 이성이 자연보다 더 늦게 출현했다는 주장과 같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루이스에 따르면, “자연주의자는 현재 이성적 사고나 추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형의 정신적 행위가 분명 자연 선택, 즉 생존에 덜 적합한 유형의 점진적 도태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Lewis, 1947: 39).” 그러나 루이스는 이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루이스는 그 이유를 이성적 추론의 타당성에서 찾는다. 루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직접적 감각을 넘어 있는 모든 지식이 그 감각작용에서 추론된 것임을 지적한다. 그는 자연주의의 난점을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는 ‘때문에’(because)의 두 가지 의미에 주목한다. 첫째, 그 단어는 원인(Cause)과 결과(Effect)의 관계를 가리킨다. 둘째, 근거(Ground)와 귀결(Consequent)의 관계를 가리킨다. 자연주의자에 따르면, “전자는 사건이나 ‘사태’ 사이의 역동적 관련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후자는 신념이나 주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우리의 이성적 추론 과정은 그 안의 각 단계가 근거와 귀결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선행하는 단계와 관련을 맺고 있지 못하면,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으로서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다.” 다른 한편, “자연 속의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보다 선행하는 사건들과 관련되어야 한다(Lewis, 1947: 34).” 결론적으로, 어떤 사고 과정에 가치가 있으려면, 동일한 정신적 활동에 두 가지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루이스는 우리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사고과정은 근거와 귀결의 관계를 가진 모든 생각을 일으키는 필연적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법칙은 수정되어야 한다. 한 생각이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이유는, 전자의 생각이 후자의 생각에 근거라서가 아니라, 전자의 생각이 후자의 생각에 근거라고 추론하기 때문이다(Lewis, 1947: 36). 그러기에 우리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추론 행위가 진정한 통찰이 아니라면, 매 순간 우리는 감각 외에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자연주의자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자는 이성 진화의 역사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이성적 추론에 대한 주장들과 조화될 수 없다. 결국 자연주의는 우리의 이성

적 추론 과정을 믿지 않는다. 루이스가 말하는 자연주의의 난점은 바로 이것이다.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주의는 난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주의는 우리의 이성적 추론 과정을 신임하지 않거나, 혹은 어쩌나 신뢰하는 정도가 낮은지 자연주의는 자연주의 자체도 지지해 주지 못합니다 (Lewis, 1947: 33).

루이스에 따르면, 자연주의의 난점은 이성적 추론을 통해 얻는 지식을 신임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적 추론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떠한 과학도 참일 수 없다. 이성적 추론활동에 타당성이 없다면, 인간의 지식은 모든 신뢰성을 잃어버린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는 사고가 전적으로 이성과 무관한 원인의 결과라고 밝혀지는 순간, 이성적 신뢰성은 모두 상실된다. 자연주의도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추론에 의해서만 도달될 수 있다. 결국 루이스에 따르면, 이성이 자연에서 나온다고 하는 자연주의는 해결하지 못하는 난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성과 자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루이스는 이성과 자연의 경계에서 많은 통행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일방통행이다(Lewis, 1947: 52).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자연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은 이성적 사고를 발생시킬 수 없다.

자연이 이성을 침범하면 다만 이성을 죽이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성이 자연을 침범할 때는 자연을 포로로 잡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식민지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과 자연의 관계는 소위 비대칭적 관계입니다(Lewis, 1947: 53).

루이스에 따르면, 이성과 자연의 관계는 이성이 자연에게로만 가는 일방통행이기에 비대칭적 관계이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성적 사고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독자적'으로 존재한다(Lewis, 1947: 55). 달리 말하면, 자발적이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루이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자연 너머, 혹은 이면에 무언가가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자연 속에 난 작은 균열 부분이다 (Lewis, 1947: 59)." 이렇게 본다면,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을 초월하는 것이 있다. 자연주의자도 이런 이원론을 인정할 수 있다. 루이스는 이원론이 자연주의 가운데 가장 용기 있고 이성적인 형태의 견해라고 생각한다(Lewis, 1947: 62).

3.2. 자연주의와 도덕률

지금까지 자연주의의 난점을 이성적 추론행위와 관련하여 다루었다. 인간이 주장하는 이성적 추론행위가 모두 타당하다는 사실을 자연주의자는 인정해야 한다. 도덕률에 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을 기준으로 보편적 법칙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 법칙을 도덕률이라고 한다. 여기서 자연주의의 난점이 드러난다. 자연주의가 옳다면 도덕적 판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자연주의가 옳다면, "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말은 "나는 지금 몸이 가렵다"나 혹은 "나는 지금 몸이 찌뿌드드하다"와 같은 종류의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도덕적 판단은 화자의 느낌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Lewis, 1947: 73).

루이스에 따르면, 자연주의자가 말하는 도덕적 판단은 말하는 사람의 느낌에 대한 진술이다. 그러나 자연주의자도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루이스는 자연주의자들의 자가당착을 그들의 영광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성을 배제하는 철학을 견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자들은 여전히 인간이다(Lewis, 1947: 75).” 자연주의자들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자연주의자들은 도덕적 판단을 통한 도덕률을 인정한다면, 자연의 산물이 아닌 사람의 양심을 인정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사람의 양심은 자연과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사람의 양심을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선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 지혜, 즉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도덕과 무관하고 이성과 무관한 자연의 산물이 아닌, 어떤 도덕적 지혜의 산물이어야 합니다(Lewis, 1947: 77).

루이스에 따르면, 사람의 양심은 전적으로 독자적이며, 도덕적 지혜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 앞에서 자연주의자는 ‘진퇴양난’에 처한다. 자연주의자는 초자연주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성적 사고와 선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통해 그는 자연주의자도 초자연적 원천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4. 오해된 초자연주의

지금까지 자연주의의 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적을 이해했다. 이제 자연주의나 초자연주의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루이스는 독자들이 초자연주의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초자연을 처음부터 배제한다면 어떠한 기적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선 자연의 성격 자체가 기적을 배제한다는 오해를 풀고자 한다. 그리고 초자연주의를 인정하지만 기적은 인정하지 못하는 범신론도 살펴보고자 한다.

4.1. 기적에 대한 오해

자연주의의 난점을 인정한다고 초자연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적을 배제할 수도 있고, 자연의 성격 자체가 기적을 배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먼저 자연의 성격 자체가 기적을 배제한다고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고자 했다. 그가 보기에 이 생각은 세 가지 오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째, 옛날 사람들은 자연법칙을 몰라서 기적을 믿었지만 과학의 시대에 기적은 있을 수 없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루이스에 따르면, “기적에 대한 믿음은 자연법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하기는커녕, 사람들이 그러한 법칙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생길 수 있다(Lewis, 1947: 93).”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평범한지를 알아야 비로소 어떤 것이 비범한지를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자연이 규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적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기적은 사라진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골자입니다. 시간이니 진보니 과학이니 문명이니 하는 것은 이것을 조금도 바꿔놓지 못합니다. 믿음과 불신의 근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 어쩌면 여러 분과 저는, 이 책의 끝에 가서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는지의 여부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난센스는 말하지 않도록 합시다(Lewis, 1947: 95).

루이스에 따르면, 기적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기적은 정의상 하나의 예외적 사건이다. 세상에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 이야기들은 거짓일 수도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 이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몫이다.

둘째, 옛날 사람들이 기적을 믿었던 이유는 우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데 있다는 오해가 있다. 이 오해에 따르면,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우주에서 가장 큰 것으로 생각했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여겼지만, 우주의 광대함을 아는 현대인이라면 하나님이 지구상의 인간에게 큰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우주의 광대함을 근거로 기독교 교리의 허무함을 말할 수 없다. 기독교 교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누구도 우주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이스는 이 오해에 근거한 논증을 반박하기보다 그 논증이 생겨난 이유를 찾고자 한다. 그가 보기에 그 이유는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감정의 문제에 있다. 루이스에 따르면, “우리가 크기 상의 차이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감정의 문제일 뿐이다(Lewis, 1947: 103).”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대가 그들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경찰이 용의자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접근한다. 이는 용의자가 한 일을 모두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는 태도이다.

물질적 우주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이끌어 오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자연의 방대함에 압도당하는 것은, 다만 인간의 상상력이 자연을 정신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Lewis, 1947: 104).

루이스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대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시작된다. 인간인 우리는 자연을 절대화하며 그와는 다른 상상에서 시작하는 세계관을 반박하며 절대화한 자연을 침범하는 기독교를 가장 크게 반박한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기독교를 반박하는 논증으로 삼는다.

셋째, 기적을 그저 자연을 침범한 이성적 사고로 치부하는 오해가 있다. 세상에 인간의 합리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다. 기적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루이스는 좀 더 인내하라고 부탁한다. 루이스는 인간 이성과 도덕성을 기적의 실례로서 다루지 않고 초자연에 대한 증거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자연이 어떤 존재로부터 침입당했다고 보지 않고 어떤 존재가 자연에 침입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여기서 기적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시작된다. 루이스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초자연이 자연에 침입하는 다른 경우가 있는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할 때 자연 전체에게 부여했던 그 일반적 성격으로 인해 생기는 일이 아닌 사건도 자연 속에 들어오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Lewis, 1947: 87).

4.2. 범신론의 근본

자연이 본질상 기적을 허용할 수 없는 체계라는 입장에서 오는 오해를 살펴보았다.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하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셨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합당한가? 초자연주의를 믿어도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범신론자들이 있기에 이 질문이 중요하다. 범신론은 자연 내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긴다. 따라서 루이스는 이 입장을 하나의 ‘종교’라고 여긴다. 기독교를 변호할 때 끊임없이 부딪히는 반대는 상대방의 무종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종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종교’가 기적을 배제하는 것은 기독교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신 기적 같

은 일은 (실은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중적 ‘종교’는 대략 범신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Lewis, 1947: 158).

루이스에 따르면, 범신론은 기적을 배제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 왜 범신론자는 하나님이 살아서 행동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선 범신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적 속성을 부정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신의 속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불변하다는 진술이 그 예이다. 부정적 진술의 목적은 하나님이 제한된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선언하려는데 있다. 예언자나 성인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세상의 제한성을 뛰어넘는 부정적 진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성적이고 계몽된 종교를 만들기 위해 이 부정적 진술을 아무런 제어 없이 사용하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루이스는 이 문제 때문에 서구 기독교의 신관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세련화 과정의 매 단계마다 우리의 신관은 점점 내용을 잃어가다가, 치명적인 심상들(끝없이 펼쳐진 고요한 바다, 모든 별 너머의 텅 빈 하늘, 흰 광채 나는 돛등)이 들어오게 되고, 급기야 그저 무(無), 실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경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Lewis, 1947: 175).

루이스에 따르면, 어떤 것에 제어 받지 않고 사용되는 우리 이성은 결국 실재하지 않는 것을 경배하게 된다. 사람들은 부정을 통해 파악되는 추상적 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루이스에 따르면, 이는 범신론의 가장 깊은 뿌리다(Lewis, 1947: 181). 그들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존재이다. 결국 범신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인격적 하나님을 좋아한다.

5. 역사적인 기적

지금까지 기적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자 했고, 초자연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종교인 범신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는 기적이 자연법칙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범신론과 기독교의 하나님을 비교·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존재라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도 살펴볼 것이다.

5.1. 자연법칙과 기적의 양립가능성

루이스는 자연주의의 난점을 두 가지 면에서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자연주의는 이성적 사고와 선악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 결과 초자연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렇다면 기적을 자연법칙의 위반이라고 말한 흄의 정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루이스에 따르면, 기적은 자연을 깨뜨릴 필요가 없다(Lewis, 1947: 112). 달리 말하면, 기적이 자연법칙을 깨뜨린다는 흄의 정의는 부정확하다.

루이스의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자연법칙 개념을 살펴야 한다. 루이스는 자연법칙 개념을 세 가지로 이해한다.

- (1) 자연법칙은 관찰에 의해서만 알려지는 단순 맹목적 사실에 불과하다.
- (2) 자연법칙은 평균치 법이 적용된 경우다.
- (3) 물리학의 근본법칙은 실제로는 수학의 진리처럼 소위 ‘필연적 진리’이다(Lewis, 1947: 108).

루이스에 따르면, 자연법칙은 관찰에 의해 알려지며 평균치 법이 적용되는 필연적 진리다. 자연주의자

는 모든 실재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기적이 자연법칙을 깨뜨린다고 말한다. 언뜻 보기에 자연법칙 때문에 기적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루이스에 따르면, 이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Lewis, 1947: 110).

루이스는 기적이 자연법칙을 깨지 않는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자연법칙은 기적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연법칙 개념들은 기적을 확실히 반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개념을 통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관찰해 온 ‘법칙들’이 내일 지켜질 것인지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법칙이 왜 발생하는지를 모르기에 그 법칙이 왜 다른 식으로 발생할 수 없는지도 당연히 알지 못한다. 이는 두 번째 개념과 세 번째 개념에도 적용된다. 어떤 사건이 법칙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는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이나 ‘다른 간섭이 없다면’과 같은 조건이 있다. 이와 반대로 기적은 조건이 동일하지 않거나, 누군가의 간섭을 통해 일어난다. 이 점에서 자연법칙의 필연적 진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허물지 못한다. 오히려 초자연을 인정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된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법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루이스에 따르면, 자연법칙은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못한다(Lewis, 1947: 113). 우리는 마치 자연법칙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 착각은 마치 사칙연산만 잘하면 진짜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과 같다. 결국 기적이 자연법칙을 깨뜨린다는 생각은 부정확하다.

그렇다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루이스에 따르면, 기적은 원인이 없는 사건도 아니고, 결과가 없는 사건도 아니다. 달리 말하면,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의 활동이며, 기적의 결과는 자연법칙에 따라 나타난다(Lewis, 1947: 116). 루이스는 이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어떤 사람이 각각 다른 날에 자물쇠가 있는 보석함에 20만원 현금과 10만원 수표를 넣었다면 그 합이 30만원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도둑이 20만원 현금을 가져갔다면 10만원 수표가 남는다는 사실은 수학법칙에 따른다. 문제는 보석함 자물쇠에 있고 집을 잘 지키지 못한 데 있다. 루이스는 기적을 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그분이 ‘밤중에 도둑처럼’ 오시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기적은 일종의 조작, 간섭, (말하자면) 도둑질입니다(Lewis, 1947: 112).

루이스에 따르면, 기적은 초월자의 간섭이다. 결국 어떠한 기적도 자연법칙을 깨뜨릴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기적의 독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기적은 자연 법칙과 잘 맞물리지 않는다. 정의상 기적은 자연의 일상적 행로를 간섭하는 것이다. 많은 자연주의자는 이 점을 못 받아들인다. 하지만 자연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기적은 더 깊은 수준에서 모든 것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연히 나타내 준다. 루이스에 따르면, 진짜 기적은 시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비운율적 산문 덩어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시 어디에도 그와 평행되는 곳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의 통일성을 최고로 계시해 주는 지극히 대담한 운율 같은 것이다(Lewis, 1947: 118). 결국 기적이라는 신적 예술은 사건들이 순응하는 패턴을 잠시 중단시키는 예술이 아니라, 그 패턴 속으로 새로운 사건들을 들여오는 예술이다. 우리가 이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연 스스로는 기적을 산출할 수 없다는데 있다.

5.2.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살펴보는 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루이스의 논의를 좇아 범신론과기독교를 비교·대조하고자 한다(Lewis, 1947: 163-166). 첫째, 범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범신론자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퍼져 있거나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보

기에 하나님은 개별 존재자가 아니라 보편적 매개물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지점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범신론을 배제한다.

둘째, 범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그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범신론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이거나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제 몸을 움직이듯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즉 범신론자는 우주 자체를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하며,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범신론자는 하나님이 악이나 선에 똑같이 있으며, 그 둘을 심판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한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정의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마치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 내듯이 공간과 시간, 열과 추위, 색깔과 맛, 모든 식물과 동물은 하나님이 ‘머리 속에서 생각해 내신’ 것이다(Lewis, 1952: 73). 이 정의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범신론자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이 초인격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범신론자는 하나님을 명목상 초인격적 존재라고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인격체에 못 미치는 존재로 이해한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에 따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 내지 의로운 분으로 자신의 입장과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분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추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다. 2차원 세계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범신론보다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한다. 범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심오하지만, 이는 옳다는 보증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루이스는 기독교만 범신론을 물리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Lewis, 1947: 161). 루이스는 기독교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옹호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개별자’(a particular Thing)이다(Lewis, 1947: 170).” 루이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구체적인 개별자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개별자는 자연법칙이나 사고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개별자를 낳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개별자’이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구체적이고 개체적인 사물들과 사건들의 궁극적 원천이라면, 그분 자신은 분명 최고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Lewis, 1947: 169).

루이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구체적 개별자이다. 보통 사람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자주 무시한다. 하나님은 명확한 성격을 소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부도덕하지 않고 의로우며, 비활동적이지 않고 창조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구체적 개별자와 구분된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자의 중심이며 사실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개별자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범신론이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 개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루이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살아 계신 하나님, 반대쪽에서 줄을 끌어당기시며 무한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추적자와 왕,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일종의 “루비콘 강”을 건너는 일이다(Lewis, 1947: 183). 건너든지 건너지 않든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은 역사가 될 것이다.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루이스의 『기적』을 논리적 변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변증

태도와 기적교리를 한 걸음 발전시키고자 했다. 우선 기적에 관하여 논하기 전에 철학적 입장을 이야기 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철학적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그 입장을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로 나눈다.

먼저 자연주의의 난점을 이성과 도덕률에 근거하여 이야기했다. 첫째, 자연주의자의 사고과정에서 오는 난점이 있다. 자연주의자는 인간의 생각이 근거와 귀결의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 모든 생각이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우리는 이것을 추론이라고 한다. 자연주의자는 이성적 추론으로 얻는 지식을 신임하지 못한다. 이에 따르면, 자연주의자는 ‘어떤 과학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는 자연과 무관한 원인의 결과이다. 둘째, 자연주의자의 도덕적 판단에서 오는 난점이다. 자연주의자는 도덕적 판단을 하나의 진술로 생각한다. 달리 말하면, 자연주의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덕적 판단은 말하는 사람의 느낌에 대한 진술이다. 하지만 자연주의자도 도덕적 판단을 주장한다. 이것은 자연주의자의 모순이다. 이것에서 사람의 양심이 자연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루이스에 따르면, 사람의 양심은 독자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적 기적을 인정하기를 요청하면서 기적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고자 했다. 또한 초자연주의를 인정하면서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범신론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루이스에 따르면, 범신론자는 기독교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일반적으로 타락한 이성은 제어가 없으면, 범신론에서처럼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신을 생각한다.

결국 이 논문은 기독교의 기적이 역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루이스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루이스는 자연주의 입장에서 기적을 논한 흠의 의견을 반대한다. 흠에 따르면, 기적은 자연법칙을 깨뜨린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루이스는 기적을 자연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루이스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주장한다. 만약 절대적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기적 이야기는 거짓말이나 전설, 역사 중 하나가 된다. 범신론에서와 같은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하나님만 인정된다면, 기적 이야기는 거짓말이 된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성경 이야기는 역사가 된다.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다. 이러한 루이스의 변증 방법은 다원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 또한 루이스의 기적 이해는 기독교를 적대시 하거나, 성육신 사건을 의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Brown, Colin (1984). *Miracles and the Critical Mind*.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Hume, David. *Of Miracles*. 이태하 역(2003). 『기적에 관하여』. 서울: 책세상.
Lewis, C. S. (1947). *Miracles*. 이종태 역(2008). 『기적: 예비적 연구』. 서울: 홍성사.
Lewis, C. S. (1952). *Mere Christianity*. 장경철·이종태 역(2001). 『순전한 기독교』. 서울: 홍성사.
Lockter, Herbert. 김상기·조성열 역(1986). 『기적』. 부산: 로고스.